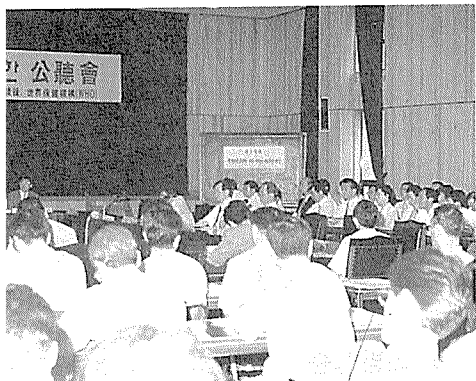


법 국민적 건강실천운동 전개 등

보사부 「국민건강증진법안」 입법·예고



보건사회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8월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 및 언론계·학계·연구기관·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변종화 보사연구위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및 사업 추진 방안”, 보건사회부 박병하 보건정책과장의 「국민건강증진법 시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토론회를 갖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변종화 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앞으로의 보건정책은 지금까지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중심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로의 일대 전환과 함께 적극적인 건강향상책으로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강화, 인력·시설·예산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특히 중앙의 사업지원기능 강화, 지방의 사업조직 및 시설 확충, 공공 및 민간조직의 사업참여 및 투자 유도, 법 국민적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대 국민 보건교육 개선·강화, 건강증진법 제정, 학교 보건교육 개선·강화, 사업장 보건안전시설 확충 등 보건예방사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병하 과장이 소개한 「국민건강증진법안」은, 19세 미만인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금연·절주 운동 적극 전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 건강증진 위한 책임 부여, 건강의식 오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 금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비롯한 보건단체, 의료보험 보험자 등의 국민건강증진사업에의 적극 참여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 확정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은, 질병예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의 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국민 건강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교육청 위원 건강검사 실시

건협 경기지부, 오는 9월 15일까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가 경기

도 교육청 교육위원들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월 25일에 시작된 이번 검사는 교육위원 26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청 교육위원들에 대한 건강검사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지부가 실시했던 경기도 의원들에 대한 검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데 따른 성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금연의 전화” 700-6577 개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금연정보 제공

이제 금연에 대한 정보를 전화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금연운동을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인 “금연의 전화”를 개설한 것.

지난 5월 31일부터 시작된 이 “금연의 전화”는 흡연이 가져오는 피해, 금연방법 등 금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연의 전화는 크게 6가지 정보를 제

공하고 있는데, 담배의 독성물질과 질병, 금연 100% 성공법, 흡연대상자별 금연정보, 전화 금연학교, 담배에 얽힌 상식과 통계, 각종 금연 프로그램 안내 등이며 각 내용별로 다시 세부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한편 “금연의 전화”를 이용하려면 해당 전화번호(서울 700-6577)를 누른 뒤 안내녹음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음성정보의 해당번호를 누르면 된다.

보사옴부즈맨제도 도입

보사행정 발전과 투명성 확보 위해

보건사회부가 보사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한다.

보사행정의 발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7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보사부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평소 보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식견을 겸비한 각계 전문

가 9명을 『보사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을 하게 된다.

한편 보사부는 일반국민들이 이 『보사옴부즈맨』을 통하여 보사업무 쇄신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83쪽)

기생충 검사의 고급 신기술 습득

건협, 기생충 검사 전문요원 교육 실시



육에는 서울지부 이병순씨를 비롯해 13명의 검사요원이 참석해 기생충 이론, 기생충 검사 실기 등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캐나다 토론토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열대의학 및 기생충과의 한상희 박사가 초빙되어 강의를 실시해, 인체 기생충 전반에 걸친 검사기술과 30년 경험을 통한 고급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각 시도지부 기생충 검사 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충남지부에서 실시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 지도자급 전문요원 양성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

육은 하루 13시간 교육이라는 강행군 속에서도 모두 열정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며, 이들은 교육 마지막날 있었던 실기 테스트를 거쳐 수료증을 수여받았다.